

지역산업보건사업추진에 대한 제언

부산의대 교수 김 돈 규



산업보건사업이란 산업체의 구조가 근로자들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여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일, 즉 산업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세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들은 산업집단의 본질적인 이윤추구가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장 보건관리를 위한 전문관리자를 상근으로 채용하는 것을 기피하고 비상근으로 하는 경향이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므로 비상근 보건관리자들은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산업장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의욕과 기회마저 결여되어 있어 산업장의 특성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법률에 규정된 근로자들의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산업장의 경영주나 보건관리자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하였고 이것이 곧 산업보건사업의 전부라고 생각하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같은 경향은 산업보건협회 부산지부센터가 창립된 이래 현재까지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미루어 볼 때 더욱더 그러한 사실을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하루속히 탈피하기 위하여서는 산업장의 이윤추구라는 본질적인 입장에서나 산업보건사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라도 상근보건관리자를 채용할 수 없는 산업체는 집단관리를 체계화하여 집단관리를

담당하는 보건전문 기관은 산업보건 사업만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산업장의 구조를 이해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업보건사업이 추진될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보건관리자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지역의 산업보건센터와 비상근 보건관리자 사이에 있었던 불협화음도 정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명실공히 보건관리자들을 위한 산업보건센터로서의 역할이 확고히 될 것이다.

한 지역의 산업보건사업은 산업장의 업무상 질병대책, 근로자의 적성대책, 그리고 노동력 상실에 대한 대책을 위한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건강유지 증진과 작업환경 개선에 기여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부산지역 산업보건센터의 사업활동 내용은 근로자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건강진단과 유해환경 측정사업이 주이며, 그것도 계속적이라기 보다는 단속적이어서 한 산업장의 보건정보를 계속 유지 비교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제가 확립되어 있지 못하였고 또한 근로자들의 적성과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대책을 위한 사업추진도 전무한 상태에 있다. 이같이 광범위한 산업보건사업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서는 막대한 인적, 물적

투자가 요하게 되므로 비영리사업인 현 여
전하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산업보건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서는 각 산업장들이 산업장과 근로자들의
보건관리를 위한 예산을 산업재해 보험료 지
불형식과 같이 의무적으로 일정한 계약에 의
하여 산업보건 전문기관에 지불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게 된다. 이같은 전문기관
은 확보된 예산에 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
여 모든 산업보건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됨으로써 현재까지 정
기건강진단 사업에서의 결핵과 진폐증의 보
유 상황과 혈압측정에 불과한 사업내용이

다목적 건강진단 즉 가족력으로 부터 시작
되는 혈압, 혈액, 뇨검사, 결핵 및 기관지
염 정신기능, 감각기, 순환기질환등 포괄적
인 검사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고 유
해환경의 종단적 조사로서 역학적 감시기법
이 도입되어 모든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제
공될 수 있는 관리체제가 확정될 수 있을
것은 물론이고 현재 지역산업보건사업의 관
리체제가 중앙화로 전환됨에 따라 야기된 확
고하던 기존지역 산업보건사업의 추진력과
중앙에 대한 공신력의 약화도 보완될 것으
로 믿어진다.

◆ 협회소식 ◆

“ 실행이사회 개최 ”

’85년도 제 2 차 실행 이사회가 ’85.6.20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어 제 18 회 산업안
전보건대회 중앙행사 계획 및 특수검진기술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토의되었다.

동 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대회 중앙행사
는 종전의 학술대회 형식을 지양하고 보다
현실적이며 개선 가능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개최한다는 기본방침 아래 최근 날로 증가
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의 열악한 작업환경개
선 및 근로자 건강보호에 초점을 두어 “ 중
소기업의 바람직한 보건관리체제 ” 를 주제
로 ’85.7.12 전경련 회관 (대회의실) 에서
산업보건좌담회를 갖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특수검진기관 운영에 관한 것은 ’85.
7.12 전국 특수검진기관장 회의를 소집, 향

후 운영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기
로 의결하였음.

전북지부 활성화로 지역활동 강화

당 협회 전북지부 (지부장 : 황 인담) 는
6.28일 임시총회를 개최코 전북의대 황 인
담 교수의 지부장 사임을 반기지키는 한편
앞으로 전북지역의 산업보건은 동 지부가 기
능적 구심점이 되어 추진키로 결의하였음.

이에 따라 그동안 전남지부에서 맡아오던
전북지역에 대한 회원관리, 홍보, 보건관계
자 직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은 전북지부
에서 전담키로 하고 지부 사무실을 군산의
료원내에 설치하는 한편 동 사업추진을 위
해 협회 직원 3명을 전북지부에 인사발령
하였다.